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장기화

### 미래에셋증권·현대건설·중흥토건 컨소시엄 지난달 법인 해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난항 예상... 송정역 선도지구 개발도 차질

지부진하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 권한이 있는 광주시와 사업 추진 주체인 컨소시엄, 금호타이어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컨소시엄이 해산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지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과 맞물려 송정역 일대를 교통·물류 허브,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현대건설·중흥토건 컨소시엄이 지난달 20일 특수법인을 해산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공장용지 인수와 개발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1조2000억원대의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용도변경 문제로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난이 심각한 금호타이어는 1조2000억원이상이 예상되는 공장 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했다. 공장용지인 광주공장 부지를 현 상태로 매각하면 개발이익이 높은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없는 탓에 제값을 받기 어려워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힘들어했다.

광주시도 용도 변경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 기어 형태로 내놓는 사전협상제도 활용에는 공감했으나 절차상 문제에 가로막혔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류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있다. 빛그린산단으로 공장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었다.

반면 금호타이어에선 광주공장이 심각하게 노

후화된 데다 전기가 시대대로의 전환 등에 따른 신규 기술 도입, 생산설비 교체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현재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 중인 공장 운영을 멈추고, 이전하는 것은 제조업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광주공장 부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용도변경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와 설비 이전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업 착수 시기마저 불투명해 컨소시엄 측이 투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금호타이어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사업 추진 업체를 재선정할 계획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투자위축 등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면 새로운 업체가 나설지도 장담할 수 없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과 맞물려 송정역 일대를 교통·물류 허브,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려던 ‘송정역 KTX 투자 선도지구’ 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기존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원만하게 사업 해지를 합의했다”며 “현재 신규 매수자 후보자와 광주공장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에 나섰던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특수법인을 해산해 사업을 해지하면서 공장 이전과 ‘송정역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내일 합평서 ‘군 공항 이전설명회’

### 이달 들어 세 번째...사업 필요성·지원 내용 설명

광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합평국민체육센터에서 합평군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주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합평군이 합평군 사회단체 군공항유치위원회 요구에 따라 광주시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합평에서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 달에만 세 번째다.

설명회에서는 합평군 사회단체 군공항유치위원회가 군 공항 이전 관련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절차와 기준 등 사업 필요성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이전주변지역 보상설치 등 이전 관련 지원 내용을, 합평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과장은 “이번 설명회

는 찬성과 반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공청회 성격의 자리이지만, 민간 사회단체 유치위원회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23일 ‘쌍둥이법’이라고 하는 ‘대구공항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했으며, ‘광주군공항특별법’도 여·야·정·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방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대구공항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슈퍼주니어 최시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사진)이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국내외 알릴 홍보대사로 최시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 측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선정과 관련해 광주비엔날레만이 지닌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에 친근한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 한류 문화를 선도해온 아이돌 출신으로 후보군을 좁히고 접촉해왔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는 진영(2018년), 현민(2016년), 정우성(2014년), 이병헌·임수정(2012년) 등 한류스타들이 참여했다.

2005년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한 최시원은 18년 활동 기간 동안 가수과 배우, 공연 무대 등으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최시원은 세련되고 절제된 이미지와 함께 친근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관객과 층을 아우르고 다양성을 지향하



는 광주비엔날레 브랜드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부터 슈퍼주니어는 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한류 열풍에 기여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 측은 행사 기간 아시아권 젊은 층 관객 유입이 증가하는 ‘한류스타 최시원 효과’와 함께 한국의 현대미술이 세계 속에 알려지는 ‘K-ART’ 견인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시원은 “아시아 최대 권위의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미술의 도시 광주와 한국을 세계 속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도 ‘ 으뜸인재 발굴대회’ 4월 28일까지 참가자 모집

전남도가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새천년 으뜸인재를 발굴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제4회 으뜸인재 발굴대회 참가자를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

미래 리더, 예체능 리더 등 2개 분야로 나눠 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80명을 선발하는 이번 으뜸인재 발굴대회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실기면접을 거쳐 선발된 ‘새천년 으뜸인재’에게 연간 300만~600만원의 재능계바리를 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하고 역량 개발에 집중하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전남에 있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주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중·고교로

유학을 떠났어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남에 있는 초·중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경우여야 한다.

또 서류심사 합격 인원을 1.5배수에서 2배수로 증원해 더 많은 학생에게 면접 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합격자는 6월에 발표한다. 장광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정책관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지역 청소년의 많은 참여 기다린다”며 “지역 인재가 미래를 이끌 멋진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전남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선발을 통해 총 331명의 새천년 으뜸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고대 마한 수장묘서 해상세력 추정 유물 발굴

### ‘해남 방산리 고분군’ ...가야계 토기, 한강·충청 고분 방식 확인

전남도가 27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재)마한문화연구원(원장 조근우)이 추진한 고대마한의 수장묘인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군’의 발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발굴·조사는 4월까지 이어진다.

전남도는 “고대 서남해안 연안항로를 관장했던 마한의 수장묘를 발굴·조사한 결과 가야계 토기와 한강·충청 지역 고분 축조 방식 등이 나타나 교류가 활발한 강력한 해상세력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군’은 탐진만으로 진입하는, 남해안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산 정상 부인 해발 50~58m에 자리하고 있어 탁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발굴조사에 확인된 고분은 총 3기로 고분 중심에는 목곽묘가 중심무덤으로 사용됐다. 3기 중 2호분 주변에선 전용 옹관 또는 일상용 토기를 이용한 배장 옹관묘와 동근고리큰칼, 철도끼, 짧은목단지, 철낫 등 유물이 발굴됐다.

동근고리칼과 같은 철기유물은 마한의 수장 무

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여기에 가야계 토기, 한강·충청 지역의 고분 축조 방식도 확인됐다. 주변 관방유적 등을 고려했을 때 고분을 축조했던 집단은 주변 집단과 활발히 교류했던 강력한 해상세력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상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 5~6세기 서남해안 일대에 다양한 고분을 축조했다는 고고학적 자료 가치가 있다. 또한 배장 옹관묘와 매납유구의 발굴로 마한 고분문화 및 지역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마한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활용과 고대문화의 문화적·역사적 가치 제고를 위해 내 전 지역에 대한 사·발굴 조사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2023 고소득추천 목록

<b>두릅</b>		<b>민두릅 참두릅</b>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볼부터 가을까지 수확
<b>포도</b>		<b>루비로망</b>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b>감</b>		<b>감풍, 원추태추단감, 슈퍼대봉</b>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종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b>임나무</b>		<b>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b>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b>호두</b>		<b>신품종 호두</b>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누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요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갑을농원

모욕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81읍 회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 (매곡주·정충호)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제출공고)

대상건설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용비(을)는 2023년 03월 27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업)의 일부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제 의일로부터 1개월 내로 본 회사에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갑” 대상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 6, 2층 (오야동) 대표이사 최용준

“을” 주식회사 용비

광주광역시 동구 방실로136번길 8-9, 101호(삼수동) 대표이사 이인우

산행안내

4월1일(토)

▲광주호신회 4월 1일(토) (신안군 선도 법덕산 및 수선화 축제)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